

지역사회 연계 창의교육과정 지원 확대

전북교육청,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나' 등 2026학년도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개설 교육감 승인 과목 7종 승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의 삶과 지역사회가 연결된 창의적 교육과정 지원을 확대한다.

전북교육청은 2026학년도 중학교 학교자율시간에 개설할 수 있는 교육감 승인 과목(교시 외 과목) 7종을 새롭게 승인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신규 과목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나 △은고일신 △디지털 완주 △완주에서 세계로 △남원을 걷다 △리산 용성길 △마이클에서 세계로 등이다.

학교자율시간은 지역과 학교의 특색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

는 것으로 '주어진 교육과정'에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변화 중 하나로 중학교 3년 동안 한 학기 이상 편성·운영하도록 돼 있다.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학교자율시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자율시간 과목 개발 연수 △신설 승인 절차 안내 △편성·운영 참고자료 보급 등을 추진해왔다.

특히 전북교육청에서 개발한 지역 교재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나' 한

문과 인성이 결합된 '은고일신'도 승인해 각 중학교에 안내했다.

또한, 2026학년도 보급을 계획으로 미래 농생명 산업에 대한 과목을 개발 중이며,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자율시간 연수 지원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완주교육지원청에서는 디지털 및 인공지능을 활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디지털 완주'와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완주에서 세계로'로 교수·학습자료 및 교육과정을 개발해 승인을 받았다.

학교 현장도 속도를 내고 있다. 남원 용성중학교와 남원하늘중학교는 남원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과목을 개발했고, 진안중학교에서도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과목이 신설 승인됐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학교자율시간은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으로 학교 교육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지난달 2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제3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배 청소년 콘텐츠 대회' 시상식이 열린 가운데,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과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소년 독립정신 함양 기회 '큰 의미'

제3회 전북교육감배 청소년 콘텐츠 대회 시상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2층 강당에서 '제3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배 청소년 콘텐츠 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독립운동을 찾아라'를 주제로 한 올해 대회는 학생들이 독립운동 유적지를 직접 답사하고 느낀 점을 콘텐츠로 제작·출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6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초등부, 중등부, 단체부로 나누어 작품 접수 결과 도내 26개 학교 110여 명의 학생들이 영상, 만화, 사진, 스토리 등 다양한 작품을 제출했다.

이중 심사를 통해 각 대상 3편, 최우수상 6편, 우수상 15편, 장려상 21편, 특별상 3편 등을 선정했다. 익산 공동초 김이름 교사는 지도교사상을 수상했다.

특히, 올해 대회는 현장 체험학습과 연계해 제작된 작품들이 많아 교육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와 함께 청소년들의 역사 인식과 독립정신 함양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상작은 광복회전북특별자치도지부와 전북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 학생과 도민 누구나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우리 학생들이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며 콘텐츠 제작 과정을 통해 역사적 자긍심과 창의적 역량을 동시에 키우는 뜻깊은 시간이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학교는 학생과 지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내 서점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단장해 지난달 28일 오픈했다. 사진은 이날 열린 오픈식에서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학생복지·지역상생... 전북대 교내서점 '새단장'

호남문고와 협력...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학생과 지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내 서점을 문구와 기념품 매장이 복합된 공간으로 새 단장해 지난달 28일 오픈했다.

이날 오픈식에는 양오봉 총장을 비롯해 한상욱 교수회장, 조동휴 부이사장, 구민기 총학생회장, 생활협동조합 이사 및 감사, 호남문고 최홍석 대표 등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과 기념촬영을 함께하며 교내서점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양오봉 총장은 이날 직접 구입한 AI 관련

베스트셀러를 학생들에게 전달해 현장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다.

새로 건립된 학생타운 내에 동지를 틈 전북대 교내서점은 단순한 도서 판매 공간을 넘어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된다.

운영은 전북대 생활협동조합이 직접 맡으며, 지역 대표 서점인 호남문고가 도서·문구류 및 운영 시스템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대학은 학생 복지를 강화

하는 동시에, 지역 업체와의 상생을 실현하는 모범 사례로 만들어낼 계획이다.

앞으로 전북대 교내서점에서는 교재 및 문구, 기념품 판매와 함께, 학생과 지역민들을 위한 소규모 전시·행사 공간 기능을 더해 발전시킬 계획이다.

양오봉 총장은 "교내서점은 학생과 교직원이 더 나은 학습 환경과 문화적 소양을 누리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지역 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주대 반려동물학과 펫로스 증후군 연관 인력 양성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반려동물학과는 펫로스(Pet Loss) 증후군 연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전주반려동물장례식장 아리움(대표 유명석)과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전주반려동물장례식장 아리움에서 진행됐으며,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펫로스 증후군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관련 교육과 실습 지원 △학생 대상 현장 실습 및 견학 기회 제공 △공동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보호자 대상 교육·캠페인 공동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아리움 유명석 대표는 이번 협약이 펫로스 증후군 상담 및 치유에 대한 전주대 반려동물학과 학생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주대 반려동물학과 나형철 학과장은 "학생들에게 현장 경험과 전문 지식을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반려동물 산업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지난달 29일 우석대학교 전주캠퍼스 대학 본관 23층 완주·우석 전당 W-SKY 23에서 전임교원 10명의 정년퇴임식이 열린 가운데, 박노준 총장과 퇴임을 앞둔 전임교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석대, 전임교원 10명 정년퇴임식

공로패·정부포상 수여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가 지난달 29일 전주캠퍼스 대학 본관 23층 완주·우석 전당 W-SKY 23에서 전임교원 10명의 정년퇴임식을 개최했다.

이번 정년퇴임 대상자는 전홍철(경영학부)·김두규(교양대학 전주)·김경순(교양대학 진천)·유성준(교양대학 진천)·곽병창(문예창작학과)·우용득(전기자동차공학부)·김종화(제약공학과)·정동규(컴퓨터공학부)·방병애(특수교육과)·권영안(호텔외식조리학과) 교수 등 총 10명이다.

박노준 총장은 이날 정년퇴임 교원들에게 공로패와 함께 정부포상을 전달했다. 정부포상으로는 권영안·김경순·김종화·우용득 교수가 육조근정훈장을, 김두규·유성준 교수가 근정포장을, 정동규 교수가 대통령 표창을, 방병애 교수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박노준 총장은 "오랜 세월 동안 학문 연구와 인재 양성에 헌신해 주신 교수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교수님들의 열정과 헌신은 우석의 소중한 자산으로 길이 기억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완주·연재복 기자



전주반려동물장례식장 아리움-전주대학교 반려동물학과 펫로스 증후군 연관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

초 46·중 134·고졸 658명 도교육청 누리집서 조회 가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도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를 지난달 29일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

지난달 12일 치러진 검정고시에는 초졸 75명, 중졸 185명, 고졸 913명 총 1,173명이 지원해 초졸 46명, 중졸 134명, 고졸 658명 총 838명이 최종 합격했다.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84세, 중졸 87세, 고졸 83세이며, 최연소 합격자는 초졸 11세, 중졸 11세, 고졸 13세로 집계됐다.

합격증서는 우편 수령 신청자는 2~3일 후 받아볼 수 있고, 방문 수령 신청자는 29일 오후 3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응시한 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 수령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누리집 공고문(교육소식·알림마당·고시/공고)을 참고하면 된다.

성적조회 역시 도교육청 누리집(일일미팅-개인별공개시스템)에서 17일 오후 6시까지 본인에 한해 확인 가능하다.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등 검정고시 관련 서류는 정부 24, 각급학교 행정실, 도교육청 고객지원실, 교육지원청 민원실,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김낙훈 교원인사과장은 "이번 검정고시를 통해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응시자들이 불편함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 수해 피해 학생에 특별재난 장학금 수여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최근 집중호우와 산사태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게 특별재난지원장학금을 수여하며 위로와 격려를 전했다.

전북대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 대학 본부 4층 총장실에서 '2025년도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원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정부가 지정한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피해를 입은 재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모두 6명에게 특별 장학금이 지급됐다.

전북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수해 피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북대는 피해 학생들의 수요를 긴급히 파악하고, 5,000만원 규모의 특별재난지원장학금을 편성해 신속한 지원에 나선 바 있다.

양오봉 총장은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과 학생들의 고통이 크다"며 "이번 장학금이 피해 학생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도내 IB 준비학교 10곳

전북교육청, 초등 5·중등 4·고교 1곳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IB 준비학교 10개교(초 5, 중 4, 고 1)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준비학교는 공식적인 IB 프로그램 단계(관심, 후보, 인증학교)를 밟지 않더라도 구성원들이 IB 교육의 수업·평가 체계를 자율적으로 탐색·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이다. 운영 기간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이다.

선정된 학교는 전주초포초, 대야초, 김계초, 이서초, 부안동초, 왕신여중, 임실동중, 순창북중, 영선중, 전북인공치능고 등이다.

전북교육청은 학부모와 학교의 IB 도입 요청이 증가하는 가운데 모든 수요

를 즉시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 학교가 IB 수업·평가 체계를 자율적으로 탐색하며 구성원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현장에서 수업·평가 개선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IB 준비학교'를 선정했다.

준비학교에는 교내 전문적학습공동체와 연계한 특강 및 연수를 위한 강사 지원과 도서 구입비 등이 지원된다.

또한 그동안 IB 공식 운영학교 교원에게만 제공되던 IB PD 워크숍, IBC 과정, 수업·평가 설계 심화 연수, 월드스쿨 수업 참관 등 공식 연수의 일부를 준비학교에도 개방한다. /김재훈 기자

전북 고교생, 세계시민으로 성장 글로벌 경험, 미래 진로의 나침반

글로벌 리더십 캠프 성과발표회... 참여 학생 경험 공유

전북 고등학생들이 미국 뉴욕과 뉴저지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키운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도교육청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2025 글로벌 리더십 캠프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캠프는 뉴저지 페어레이 디킨슨 대학교(이하 FDU)를 거점으로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은 FDU 교수진과 함께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원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정부가 지정한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피해를 입은 재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모두 6명에게 특별 장학금이 지급됐다.

전북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수해 피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북대는 피해 학생들의 수요를 긴급히 파악하고, 5,000만원 규모의 특별재난지원장학금을 편성해 신속한 지원에 나선 바 있다.

양오봉 총장은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과 학생들의 고통이 크다"며 "이번 장학금이 피해 학생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적으로 익혔다.

또한 UN 본부 회의의 참관과 아시아사이버터 부문, 프린스턴대학교 탐방, 뉴욕 현대미술관 견학 등 다양한 현장 체험을 통해 세계 문화를 직접 경험했다.

성과발표회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반별 주제 발표와 활동 영상을 공유하고, 성장과 진로 에세이 발표가 이어졌다.

학생들은 이번 캠프를 통해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소감을 전했다. /김재훈 기자

지방공무원 노사 소통·협력 다짐

전북교육청, 노사 공동 연수... 전북교육 발전 방향 모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달 28~29일 보령 비체펠리스에서 지방공무원 노조 임원 및 조합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지방공무원 노사 공동 연수'를 개최했다.

이 연수는 지방공무원 노사가 협력과 소통을 통해 노사관계 역량 강화와 상호 이해 및 발전 방안을 공유하고 상생의 노사문화 정립을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기자

주요 내용은 △협력적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한 노조법 및 노사 관계 이해 특강 △공무원 노동 인권 교육 △노사 상생 및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분임 토의 등이었다.

노경숙 노사협력과장은 "노조는 우리의 동반자"라며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과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